

신당 '무공천' 계파갈등 비화 조짐

박지원 이어 문재인도 문제 제기

'원칙론 vs 현실론' 정면 충돌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을 코앞에 둔 25일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신당 창당 이후 계파 간 갈등으로 비화할 분위기다. 당내 일부 인사들의 무공천 반대 입장 정도로 치부됐던 분위기는 전남 문재인 의원의 문제제기로 현실론과 원칙론이 정면 충돌하며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특히 문 의원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됐던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대표격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김한길·안철수 대 친노'의 대립구도로 번지지 않느냐 하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문 의원은 전남 부산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오찬간담회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은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이었지만 상대방인 새누리당에서 '계인의 물'을 바꾸려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만 무공천을 할 경우 일방적인 선거결과가 우려된다"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당원들에게 설득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 중진과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다시 졸부들의 진출과 비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해야 한다고 즐기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무공천 원칙론이 우세하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서 새정치가 시작된다"면서 "우리는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거짓 정치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초선거 무공천이 (민주당과의) 통합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당장 선거의 율리를 따져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약속을 뒤집는 것이 새정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jp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루 앞둔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한 민주당 당직자가 마지막 의원총회 종료 후 민주당 당기(黨旗)를 옮기고 있다. /연습뉴스

6·4 지방선거 현장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이춘문, '좋은 서구청장 만들기 본부' 창설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광주시의회 이춘문 의원은 25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서구청장 만들기 본부' 조직 창설에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좋은 서구청장 만들기 본부'는 최근 서구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구성하려는 단체로 알려졌다.



박용상, 해남군수 출마 공식 선언

박용상 전 전남관광부 본부장이 지난 23일, 해남군수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후보는 "관광산업을 통해 '해남의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겠다"며 "농수산물과 연계해 농어민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정일 전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전남관광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김신, 완도군수 출마... '청해진 꿈 완성'

김신 완도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완도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완도는 당신을 믿습니다! 김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김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을 마친 뒤 "청해진 100년의 꿈을 완도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 출마... '소통형 군수'

김준성(63) 영광군수 후보가 2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영광군민은 민선 6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CEO형 군수, 서민의 손을 잡아줄 소통형 군수를 원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 부자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경록, 강진군수 예비후보 등록

장경록 전 강진읍장은 최근 강진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 40여 년의 행정 경험을 통해 강진 발전을 위한 충분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민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지역 백과사전으로 군정의 안정화를 꾀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인, 광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재인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광주시의원(제2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 예비후보는 "수년간 중앙당의 당직 생활로 인한 풍부한 정치 경험과 중앙 인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광·강진·해남=조익상·남철희·박희석 기자 ischo@

신당, 최고위원 최대 25명...1년간 '투톱체제'

■ 새정치연합, 당헌 내용

부정부패로 지위 상실한

해당 선거구 후보자 무공천

'당원+국민참여+국민' 경선

전략공천 가능성도 열려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 체제를 최대 25명이 참여하는 최고위원제로 하고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로 지위를 상실하면 해당 선거구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투톱 체제'로 1년간 임시 지도부를 꾸리기로 했다. 다만, 이

후 선출된 새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 이상민·이계안 공동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당헌을 발표했다.

새 당헌에 따르면 내년 3월 전당대회 이후 정식 출범하는 신당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상임최고위원 5명, 노인·여성·노동·청년위원장,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 7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전당대회 전까지 1년간 당을 이끌어갈 임시 지도부는 2인 공동대표와 이들이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최고위원들로 구성된다. 임시 최고위원 숫자는 미정이다.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그대로 유임되지만 임기가 끝나는 5월 둘째

주 이전에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위한 경선 방식으로는 기존 민주당의 '당원경선'과 '국민참여경선'(당원+일반국민) 외에 당원 숫자가 부족한 새정치연합 측을 배려해 '국민경선'을 새로 추가해 이들 방식을 적절하게 혼용한 방안을 당 지도부가 결정하게 된다. 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의 결정으로 달리한다'고 정해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었다.

정치혁신 실천을 위해 공천비리나 경선 부정이 확인되면 해당 후보자의 자격과 당원을 박탈하고, 당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당헌에 포함했으며 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박지원기자jpkpark@kwangju.co.kr

강운태, 예비후보 등록 연기

중앙당 "예비후보 자격심사 받아야 등록 가능"

광주시장 재선 도전을 선언한 강운태(사진)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

강 시장은 25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중앙당의 만류로 전격적으로 보류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당에서 신당 창당 이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 이기로 해 예비후보 등록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되고 당직자들이 구성되면, 중앙당과 상의해 적절한 시점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보류함에 따라 지난 24일 이임 인사까지 했던 강 시장은 다시 시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강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놓고 혼선을 빚은 것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보류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강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26일로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이후 중앙당에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선 전까지는 선출직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의 사퇴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중앙당의 방침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노용래 사무총장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강 시장은 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선출직 후보자는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 그만두거나 사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지도부의 요청사항이다"고 말했다.

중앙당 한 관계자는 "강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시장직이 정지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신당이 창당되면 당내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밟은 뒤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현재 영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전/대지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포함) 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 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14,215㎡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 지역 매매 7억
- 나주시 다시면 전 152,000㎡ 임야 86,000㎡ 대지, 주택포함 매매32억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방동참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5천만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 2,975㎡(대지포함)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지역, 매 1억 4천만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1억7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